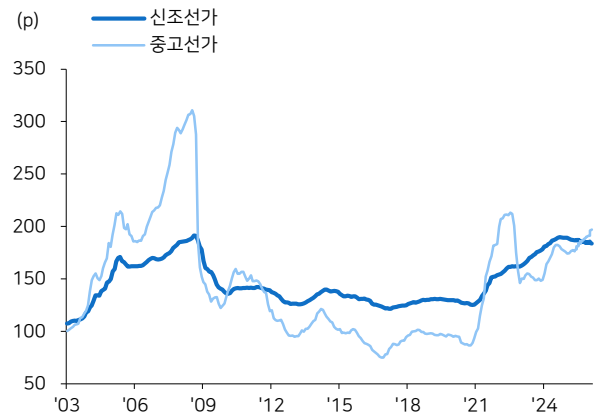
2026. 2. 13 (금)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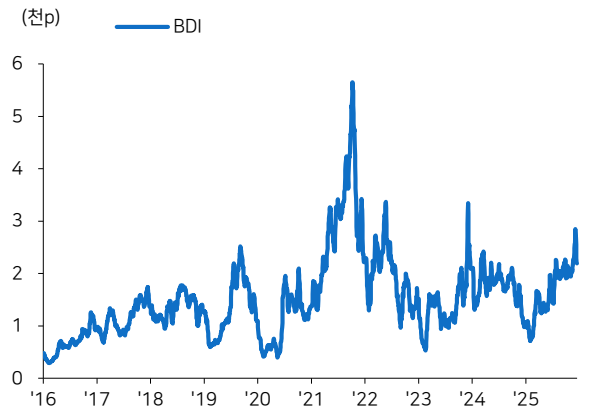
##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신조선가** 183.7p (-0.6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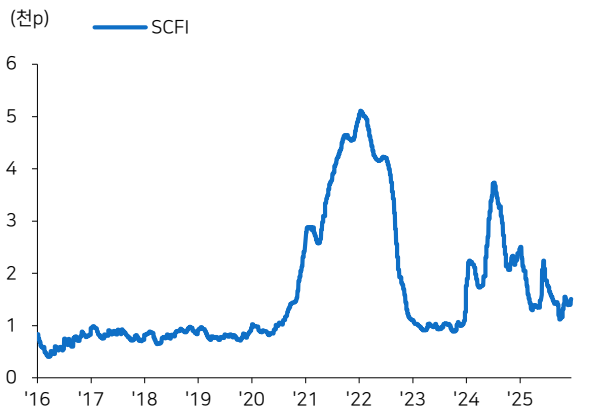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481.0달러 (-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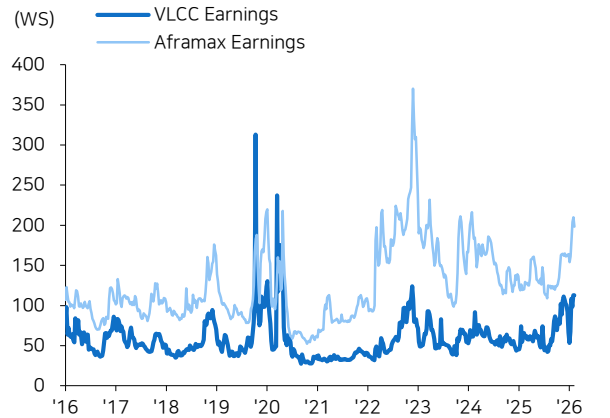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1,958.0p (+76.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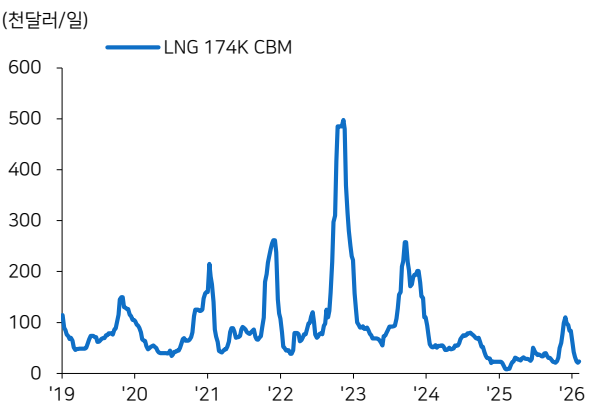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1,266.6p (-50.2p WoW)




**VLCC Spot Rate** 112.6WS (-0.1p WoW)




**LNG Spot 운임** 23.8천달러 (+2.8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외교부, '핵추진잠수함 협상팀' 신설...美와 협의 채널 역할** https://buly.kr/74Y9gdQ

외교부가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이행 협의를 위해 북미국 산하에 서기관급 팀장과 팀원 2명으로 구성된 '핵추진잠수함 협상팀'을 신설한다고 보도됨. 이는 미국 측 핵잠 · 원자력 협상 대표단의 방한을 앞두고 이뤄진 조치로, 기존 국방부 주도의 범정부 TF와 연계해 핵잠 도입 및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전해짐. 핵잠팀은 한미 간 별도 협정 체결을 위한 실무 준비와 협의 채널 역할을 수행하며, 국방부 핵추진잠수함 획득추진팀과도 공조할 예정으로 알려짐.

**Mitsui & Co linked to container ship newbuildings at Samsung Heavy Industries (Upstream)** https://buly.kr/A472MbP

삼성중공업의 1만3,000TEU급 네오파나막스 컨테이너선 2척(총 4,686억원, 척당 약 1억6,200만달러)을 발주처로 Mitsui & Co가 지목되고 있으며, 2028년 5월 인도 예정이라고 알려짐. 해당 선박은 기존 연료유 사양으로 추정되며, Mitsui & Co 선대 내 최대급 컨테이너선이 될 전망이라고 보도됨. Mitsui & Co의 통상적인 발주 성격을 고려했을 때 이번 선박은 장기 용선 계약을 기반으로 발주됐을 가능성이 높으며, 용선자의 신원과 용선료, 용선 기간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고 전해짐.

**Argentina LNG partners plan to green-light huge FLNG project in 2026 (TradeWinds)** https://buly.kr/AF1nXpV

Eni · YPF · Adnoc 산하 XRG가 총 350억달러 규모, 연 1,200만톤(mtpa) 생산능력의 FLNG 기반 Argentina LNG 프로젝트에 대해 2026년 하반기 FID를 목표로 구속력 있는 공동개발계약(JDA)을 체결했다고 보도됨. 프로젝트는 Vaca Muerta 가스를 기반으로 6mtpa급 FLNG 2기를 리오네그로주 시에라그란데에 설치해 2029년 첫 수출을 목표로 하며, 향후 최대 2,400만톤까지 확장 가능하다고 알려짐. 파트너들은 FEED, 상업 · 금융 구조 설계 등을 본격 착수하며, 완공 시 세계 최대급 FLNG 설비가 될 전망으로 전해짐.

**Korean yards face foreign labour squeeze amid LNG and MRO boom (TradeWinds)** https://buly.kr/GvoacZg

정부가 E-7 숙련 외국인 비자 축소를 검토하면서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주요 조선소의 인력 수급 차질 우려가 제기된다고 전해짐. 3대 조선소는 2024년 기준 E-7 인력 3,333명을 직접 고용해 전체의 5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LNG선 수주 경쟁 심화 속에서 인건비 상승과 숙련공 이탈(반도체 현장 등)까지 겹치며 경쟁력 약화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알려짐. 한편 E-7-3 인력의 평균 근속기간은 21개월에 그치고 저임금·이직 제한 등 구조적 문제도 지적돼, 장기적 인력 전략 부재 시 현재의 수주 호황이 오히려 산업 구조 취약성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경고가 보도됨.

**하청노조 "한화오션, 노란봉투법 시행 전까지 단체교섭 나와야" (뉴스 1)** https://buly.kr/BIWLE8p

노란봉투법(노조법 2 · 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한화오션 하청노조가 원청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이날 예정된 첫 단체교섭에 한화오션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보도됨. 한화오션은 하청노동자와 근로계약 관계가 없어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노조는 과거 중앙노동위원회와 법원이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는 주장으로 전해짐. 노조는 개정 노조법 시행 전까지 교섭 참여를 촉구했으며, 오는 24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서 2차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알려짐.

**KDDX 노리는 한화, 직전 해군총장 영입 시도...이해충돌 논란에 무산 (국민일보)** https://buly.kr/6tdOuhz

한화그룹이 KDDX(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양용모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상근 고문직을 제안했으며, 양 전 총장은 긍정 검토와 법리 검토를 진행했으나 퇴직 후 3년간 직무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을 고려해 최종적으로는 제안을 거절했다고 보도됨. 제안 직위는 방산 계열사가 아닌 다른 계열사였던 것으로 알려짐. 다만 KDDX와 캐나다 잠수함 사업(CPSP)을 동시에 추진 중인 한화 입장에서 이해충돌 논란 가능성으로 고위 장성 출신 인사의 방산기업 재취업 관련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전해짐.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